

# 창원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제조업 경영실적 조사

2019. 9

창원상공회의소

# Contents

---

I. 조사개요	3
II. 창원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제조업 경영실적	4
1. 매출액	4
2. 영업이익	5
3. 당기순이익	5
III. 재무비율로 본 창원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제조업	6
1. 성장성	6
2. 수익성	7
3. 안정성	8
IV. 정책적 시사점	10

# I

##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지역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기업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2. 조사범위 및 분석대상 : 51개사

창원지역 소재 기업 중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C303)
- 본점소재지 창원
- 외부감사 대상
- \* 국내 완성차 계열사는 제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동차산업 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및 전기장치
		자동차용 기타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4. 조사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분석

### 5. 조사내용

-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경영실적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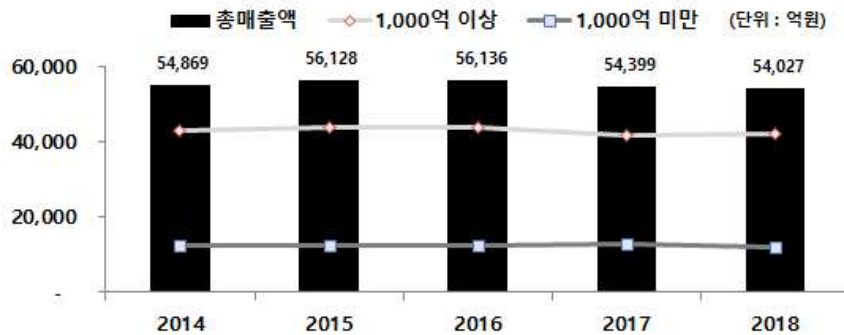
## II 창원지역 주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 경영실적

### 1. 매출액

#### ○ 창원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업(주요 51개사 분석) 매출액 감소

- 최근 5년간 창원지역 주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매출액 실적동향을 살펴 보면 2014년 5조 4,869억 원, 2015년 5조 6,128억 원, 2016년 5조 6,136억 원, 2017년 5조 4,399억 원, 2018년 5조 4,027억 원을 기록해 2017년부터 2년 연속 감소했음

규모별 매출액 추이



#### ○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군, 상대적으로 매출액 감소 폭 커

-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규모 기업(14개사)의 경우 2014년 4조 2,689억 원, 2015년 4조 3,784억 원, 2016년 4조 3,663억 원, 2017년 4조 1,518억 원, 2018년 4조 1,917억 원을 기록해 2014년 대비 2018년 매출액이 1.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규모 기업(37개사)의 경우 2014년 1조 2,180억 원, 2015년 1조 2,344억 원, 2016년 1조 2,473억 원, 2017년 1조 2,881억 원, 2018년 1조 2,110억 원으로 2014년 대비 2018년 매출액이 0.57% 소폭 감소했음

창원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매출액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4년 대비 증감률
총 매출액	54,869	56,128	56,136	54,399	54,027	-1.53%
*1,000억 이상	42,689	43,784	43,663	41,518	41,917	-1.81%
*1,000억 미만	12,180	12,344	12,473	12,881	12,110	-0.57%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 가공

\*최근 3년간(2016~2018) 평균매출액 기준

## 2. 영업이익

### ○ 영업이익, 2014년 대비 절반 수준

- 창원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은 2014년 1,953억 원, 2015년 2,061억 원, 2016년 1,485억 원, 2017년 846억 원, 2018년 1,005억 원을 기록해 2014년 대비 2018년 영업이익이 48.5% 감소했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14년 1,493억 원, 2015년 1,732억 원, 2016년 1,082억 원, 2017년 671억 원, 2018년 885억 원으로 4년전과 비교시 2018년 영업이익이 4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기업의 경우 2014년 460억 원, 2015년 329억 원, 2016년 403억 원, 2017년 175억 원, 2018년 120억 원으로 4년 전과 비교해 2018년 영업이익은 7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기업군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1,000억 원 이상 기업군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음

창원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업이익

(단위 : 억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4년 대비 증감률
총 영업이익	1,953	2,061	1,485	846	1,005	-48.5%
1,000억 이상	1,493	1,732	1,082	671	885	-40.7%
1,000억 미만	460	329	403	175	120	-73.9%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 가공

## 3. 당기순이익

### ○ 당기순이익 큰 폭 감소

- 창원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은 2014년 1,734억 원, 2015년 1,580억 원, 2016년 978억 원, 2017년 511억 원, 2018년 14억 원을 기록해 4년 연속 감소했으며, 2014년 대비 2018년 당기순이익이 99.2% 감소했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14년 1,364억 원, 2015년 1,404억 원, 2016년 670억 원, 2017년 644억 원, 2018년 116억 원으로 2014년 대비 9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1,000억 원 미만 기업의 경우 2014년 371억 원, 2015년 176억 원, 2016년 308억 원, 2017년 -133억 원, 2018년 -102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기업군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적자로 나타났음

### 창원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제조업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4년 대비 증감률
총 당기순이익	1,734	1,580	978	511	14	-99.2%
1,000억 이상	1,364	1,404	670	644	116	-91.5%
1,000억 미만	371	176	308	-133	-102	적자전환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 가공

## Ⅲ 재무비율로 본 창원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제조업

### 1. 성장성

#### ○ 성장세 둔화,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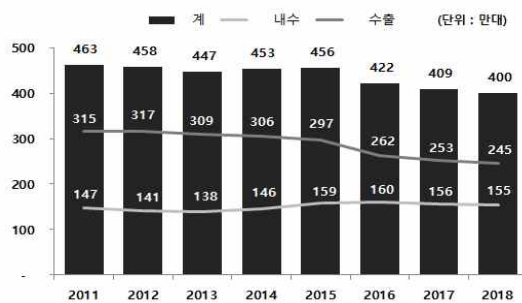
- 2015년~2018년 창원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015년 2.29%, 2016년 0.01%, 2017년 -3.09%, 2018년 -0.68%로 매출액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성장성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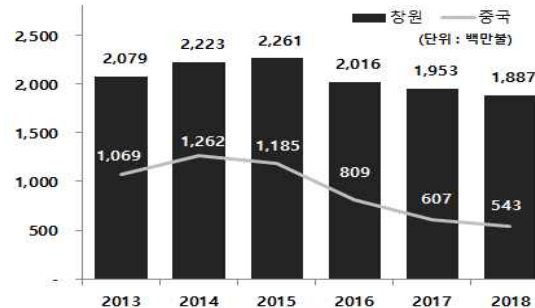
- 이는 국내완성차 브랜드의 판매대수 및 자동차부품 수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창원지역 자동차부품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對중국 수출 감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국내완성차 브랜드 자동차 총판매대수



출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통계월보

창원지역 자동차부품 수출액



출처 : 한국무역협회, 자동차부품(MTI742)

- 총자산증가율도 2015년 5.55%, 2016년 3.86%, 2017년 1.51%, 2018년 1.58%로 나타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의 성장여력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 미래의 수익창출을 위한 설비투자 실적을 알 수 있는 유형자산증가율은 2015년 6.43%, 2016년 4.44%, 2017년 2.52%, 2018년 1.24%로 나타나 창원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의 투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규모별로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15년 9.95%, 2016년 2.74%, 2017년 2.17%, 2018년 2.05%로 나타나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1,000억 원 미만 기업의 경우 2015년 6.65%, 2016년 8.42%, 2017년 3.30%, 2018년 -0.53%로 나타났음
- 유형자산증가율 하락은 창원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들이 전반적인 업황 부진 속에 투자를 통한 미래대비 보다는 현상유지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이런 투자 감소추세의 지속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창원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제조업 성장성 지표

내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증가율	2.29%	0.01%	-3.09%	-0.68%
총자산증가율	5.55%	3.86%	1.51%	1.58%
유형자산증가율	6.43%	4.44%	2.52%	1.24%
1,000억 이상	9.95%	2.74%	2.17%	2.05%
1,000억 미만	6.65%	8.42%	3.30%	-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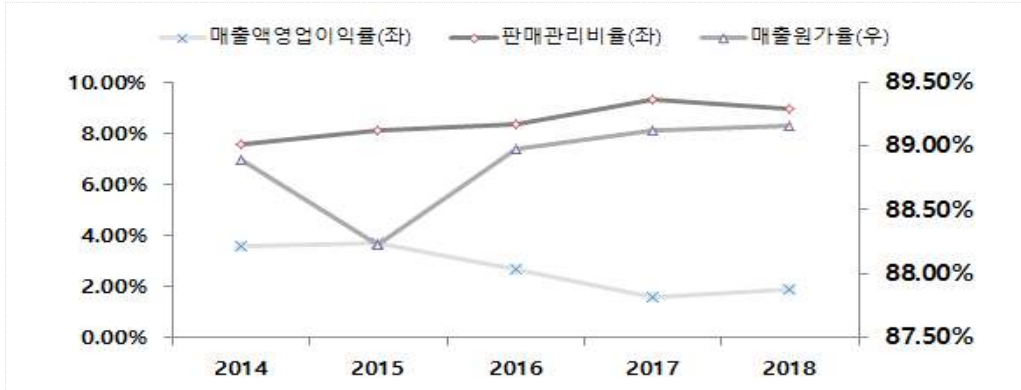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분석

## 2. 수익성

### ○ 매출액영업이익률 1%대 수준으로 하락

- 2014년 ~ 2018년 기간 동안 창원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보임. 2014년 3.56%를 기록했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2015년 3.67%, 2016년 2.64%, 2017년 1.55%, 2018년 1.86%로 나타나 주된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률이 2014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음
- 이는 판매감소 등 시장환경의 변화로 인한 매출감소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단가인하 압력,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부품 및 원자재의 매입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수익성 지표 추이



- 한편 매출액대비 매출원가율은 2014년 88.89%, 2015년 88.23%, 2016년 88.98%, 2017년 89.12%, 2018년 89.16%로 나타나 2015년 이후 3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판매관리비율 또한 2014년 7.55%, 2015년 8.10%, 2016년 8.38%, 2017년 9.32%, 2018년 8.98%로 2014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매출원가율과 판매관리비의 비중 증가로 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노동경직성이 강한 자동차부품 업종 특성상 매출원가율 상승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창원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제조업 수익성 지표

내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영업이익률 <sup>1)</sup>	3.56%	3.67%	2.64%	1.55%	1.86%
1,000억 이상	3.50%	3.96%	2.48%	1.62%	2.11%
1,000억 미만	3.77%	2.66%	3.23%	1.36%	0.99%
매출원가율 <sup>2)</sup>	88.89%	88.23%	88.98%	89.12%	89.16%
판매관리비율 <sup>3)</sup>	7.55%	8.10%	8.38%	9.32%	8.98%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분석

1) 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매출액 X 100

2) 매출원가율 : 매출원가/매출액 X 100

3) 판매관리비율 : 판매관리비/매출액 X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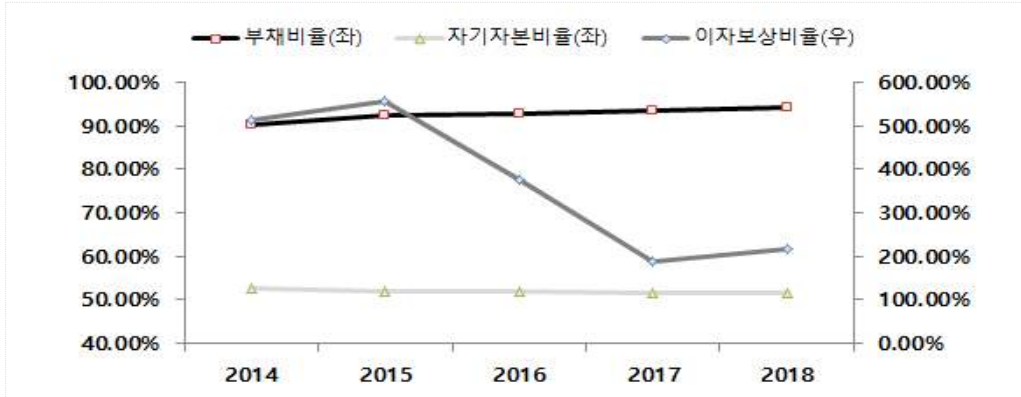
## 3. 안정성

### ○ 금융부담 증가로 안정성 악화 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증가

- 2014년 창원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2014년 90.24%, 2015년 92.38%, 2016년 92.79%, 2017년 93.45%, 2018년 94.04%로 나타나 2014년 이후 4년 연속 상승했음. 한편 자기자본비율은 2014년 52.57%, 2015년 51.98%, 2016년 51.87%, 2017년 51.63%, 2018년 51.54%로 나타났음



### 안정성 지표 추이



- 기업의 이자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은 2014년 512.54%, 2015년 555.14%, 2016년 375.49%, 2017년 187.35%, 2018년 215.13%로 급격히 하락해 2018년 이자보상비율은 2014년 대비 절반이상 하락했음. 이자보상비율의 하락은 이자비용 증가, 매출액 감소 및 판매관리비의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규모별로 살펴보면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14년 973.92%, 2015년 1,032.63%, 2016년 576.56%, 2017년 305.46%, 2018년 339.33%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1,000억 원 미만 기업의 경우 2014년 201.90%, 2015년 161.58%, 2016년 193.94%, 2017년 75.35%, 2018년 58.12%로 나타나 2014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음. 특히 1,000억 원 미만 기업군은 2017년부터 2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00%를 하회하며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했음

### 창원지역 자동차부품업체 안정성 지표

내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부채비율 <sup>1)</sup>	90.24%	92.38%	92.79%	93.45%	94.04%
자기자본비율 <sup>2)</sup>	52.57%	51.98%	51.87%	51.63%	51.54%
이자보상비율 <sup>3)</sup>	512.54%	555.14%	375.49%	187.35%	215.13%
1,000억 이상	973.92%	1032.63%	576.56%	305.46%	339.33%
1,000억 미만	201.90%	161.58%	193.94%	75.35%	58.12%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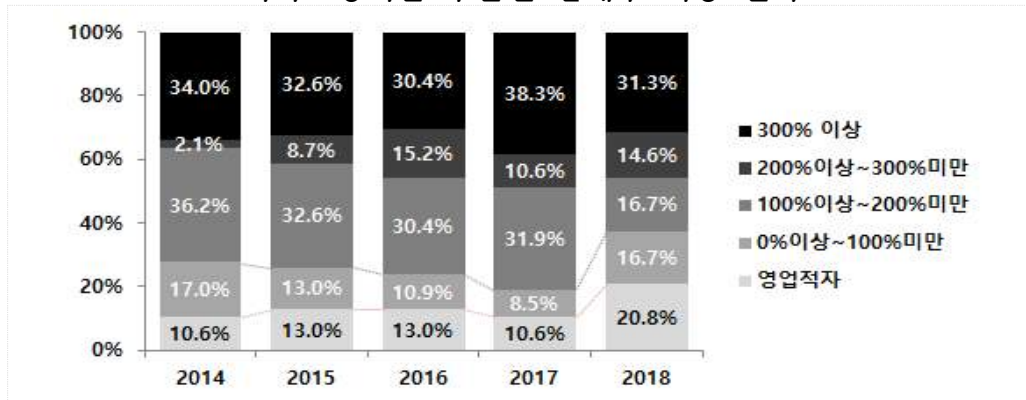
1) 부채비율 : (유동부채+비유동부채)/자기자본 X 100

2)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X 100

3)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X 100

- 또,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은 2014년 27.6%, 2015년 26.0%, 2016년 23.9%, 2017년 19.1%, 2018년 37.5%로 나타나 2014년 대비 2018년 9.9%p 상승하였고, 특히 영업적자를 기록한 기업수의 비중은 2014년 10.6%, 2015년 13.0%, 2016년 13.0%, 2017년 10.6%, 2018년 20.8%를 기록해 2018년 들어 영업적자를 기록한 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음

이자보상비율 수준별 업체수 비중 변화



### Ⅲ 종합 및 시사점

- 2014년 이후 창원지역 주요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업황 부진으로 매출과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생산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금융비용 부담 가중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여력이 감소하는 모습임
- 규모별로는 매출액 1,000억 원 미만 기업군이 1,000억 원 이상 기업군에 비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더 악화된 모습을 보였음. 이는 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전반적인 경영실적 악화 속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가 더욱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자동차부품산업은 완성차 브랜드의 판매 및 생산에 따라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특히 對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창원지역의 경우 국내 완성차 브랜드의 중국 생산량 감소가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 자동차부품업체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거래처 다변화를 통해 소수 거래처의 높은 의존도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 지난 4년간 창원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유형자산증가율이 하락하며 미래수익 확대를 위한 투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미래의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를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신규투자, R&D를 위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 한편,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부진으로 창원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원가 절감에 힘쓰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 인력구조의 고령화, 단가 인하 압박 등의 요인으로 비용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익성이 악화된 모습을 보임

- 특히, 영업이익의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부채 및 이자비용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 또한 높아졌음. 더욱이 최근 자동차업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규제 움직임은 이자상환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자동차부품업체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성장을 위한 투자보다는 현상유지도 어려운 지역 자동차부품들에게 자금난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대출상환 압력 완화와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권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